

“지역 네트워크로 살아남는 작품 생기고 극단 생존 발판 될 것”



푸른연극마을 등 전국 8개 극단 첫 합동작품 ‘별어곡’ 광주 공연

대전·부산 극단 등 참여
협동조합 설립...순회 공연
24~28일 씨어터 연바람 등

내년 서울에 소극장 마련
검증된 작품 올리고
개별 극단 공연도 지원

지역 연극관의 상황이 열악한 건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상황은 같다. 현실을 인정하고, 문제점들을 공유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4년 전 대전을 비롯한 4개 지역 극단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각 지역 소극장에서 교류 공연을 시작했다. 광주의 푸른연극마을은 이듬해 합류했다. 참여 극단들이 모두 100~150석 규모의 자체 소극장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소극장 열전’이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교류 공연을 진행했다. 푸른연극마을도 해마다 각 지역 극단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소극장 열전’을 열고 있다. 대한민국소극장열전은 지난해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했다. 푸른연극마을 비롯해 대전 극단 ‘놀자’ 대표 최정우, 전주 극단 ‘명태’, 구미 극단 ‘공터-다’, 대구 극단 ‘한울림’, 춘천 극단 ‘도모’, 부산 극단 ‘어니언 킵’에 이어 올해 경기도 안산의 극단 ‘컬팝’이 합류, 모두 8개 극단이 활동중이다. 협동조합은 올해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단순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작품을 올리는 데서 벗어나 지역 극단들이 공동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지역 극단이 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는 게 출발이다.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좋은 작

품을 만드는 것, 그게 목표다.” (오성완) 이들은 내년에 서울에도 소극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 역량이 투입된 합동 제작 작품과 순회 공연 등을 통해 검증받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또 각 개별 극단들의 서울 공연을 지원할 아지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첫 합동 작품은 부산 극단의 추천을 받은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에서’에서다. 시인 관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와 임철우의 소설 ‘사평역’을 모티브로 제작한 푸른연극마을의 대표 레퍼토리다. 푸른연극마을은 오성완 대표가 희곡을 수정하고 연출을 맡았다. 지난 1월 한달간 출연진과 스태프 등 20여명은 광주에서 한달간 합숙을 하며 연습을 마쳤다. 2월 6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전주, 구미에서 공연을 가졌다. 지난 21일 춘천 공연을 마치고, 마지막 광주 공연을 앞두고 있다. 24~25(오후 8시)일 광주콘센트산업지원센터(옛 KBS광주방송총국), 26~28(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7시)일 광주시 동구 장동 씨어터 연바람. 작품의 배경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별어곡’역이다. 하염 없이 눈이 내리는 날, 막차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다. 기차표만 모이고 기차를 타지 못하는 진안 출신 할멈, 충청도 여인 천악매, 강원도 촌부 등 각각의 사연을 담은

이들이 이야기기 펼쳐진다. 역장 역을 맡은 대전 극단 ‘놀자’의 최정우 대표를 비롯해 이새로미(대전), 정이형·오성완(광주), 김하나(대구), 배운희(구미), 양상이(전주), 허수정씨 등이 출연한다. 오성완 대표는 ‘공동 제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말한다. “솔직히 늘 하는 우리 극단 배우들, 자주 작업하는 우리 지역 배우들과 작업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 이번엔 타 지역 배우들과 연습하면서 다른 지역 배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긴장감도 느꼈다. 엄청난 자극이 됐다. 교류 공연을 할 때면 각 극단마다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생긴다. 각 작품을 올릴 때마다 품평회를 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 지역 배우들이 많이들 보러 왔으면 좋겠다.” 오 대표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결국 공연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8개 지역을 돌며 작품을 올리다 보면 ‘살아 남는’ 작품이 있고, 그렇게 검증된 작품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설명이다. 푸른연극마을은 가을에 전주, 대전 극단과 함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다양한 할인 혜택),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춘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방송국 개설...내일 첫 녹음

광주 소춘공단 근로자들과 인근주민을 위한 라디오방송국이 개설돼 오는 24일 첫 녹음이 돌입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6월 소춘아트팩토리 1층에 만들어질 라디오방송국 운영을 위한 시범 콘텐츠를 제작한다. 소춘아트팩토리 프로젝트의 라디오 방송국 이름은 ‘소춘 보이는 라디오’다. 듣는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화면까지 제공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이종범 교수의 ‘선비열전’으로 24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첫 녹음이 진행된다. 방송은 광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옛 선비들의 이야기와 광주 정체성에 대한 대담으로 이뤄진다.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진행될 ‘선비열전 3회-오픈라디오’에는 지혜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소춘 보이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공동체의 지식 정보 공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패널을 초청하여 그들의 인생에 감동과 소중한 기억을 남겨준 책 소개 프로그램 ‘소춘책방’, 광산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소개하는 ‘달리는 라디오’ 등을 제작한다. 또 광산구 안전에 대한 엄마들의 거침없는 토크쇼 ‘맘편한 광산’ 등 주민과 함께 만드는 라디오콘텐츠도 선보인다. 한편 소춘아트팩토리 프로젝트는 사막한 산업단지의 노후건물인 소춘농공단지 관리사무실을 매력적인 문화예술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의 062-670-74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극단 시민 ‘나이테’ 광주연극제 최우수상

6월 전국연극제 광주 대표로

극단 시민의 ‘나이테’가 제29회 광주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연극제에서 극단 시민은 연출상(김민호), 희곡상(김민호), 남자연기상(박규상)도 함께 수상,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연기상은 극단 열·아리의 고난영씨와 흥학진씨가 각각 여장 연기상과 신인연기상을 받았다.

‘나이테’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에 몰두하는 늙은 예술가 정성이 주인공이다. 여인의 나체를 주로 그려온 그는 외설과 예술의 경계에 선 작품으로 논란이 되고, 아내와 딸에게도 인정하지 못한다. 시민은 오는 6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연극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지난해 열린 전국연극제에서는 극단 열·아리의 ‘발톱을 깎아도’가 대통령상과 연출상, 남자 연기상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영옥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위촉

2017년 3월까지 2년간

김영옥(69) 남도전통음악연구소 이사장이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 광주시는 20일 시립극단 예술감독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선임감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차 공개모집 당시 응모자 11명에 대한 전형위원회 결과와 격차 없는 결과가 나오에 따라 특별전형 위촉을 추진했다. 순천 출신으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동편제 ‘흥부가’ 이수자인 김감독은 서라벌예술대학 음악과를 졸업했으며 전국명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흥부가, 심정가, 장작 판소리 ‘이순신가’ 완창무대를 가졌다. 특히, 미국 뉴욕 카네기홀을 초청 공연에서 장작 판소리



‘이순신가’를 공연했다. 서울 교통방송(TBN) ‘국악의 향기’, 서울 불교방송(BBS) ‘우리기락의 향기’ 진행자로, 장극무 ‘에밀레옹’, 창작 장무극 ‘성웅...그리고 어머니’, 창작 판소리 ‘이순신가’ 등을 무대에 올렸다. 여수시립극단 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했으며 사설집 ‘이순신가’를 펴냈다. 임기는 2017년 3월까지 2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도종환 의원 문학진흥법 발의

세정지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문학 장르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문학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문학진흥기금계획 수립, 국립문학관 설치 근거 마련, 문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문학진흥정책위원회 통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문학 향유를 위한 문학교육 지원, 문학관 지원 등을 빼제외 한다.

그동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각종 예술장르에 대한 지원법이 마련돼 있지만 문학 장르를 지원하는 법은 없었다. 도 의원은 “정부에서는 인문정신진흥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선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정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인문정신을 진흥하려면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문학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식!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